



## 정기 건강 검사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

### 최진학

과거의 의학이 건강에 관한 학문이라기 보다는 질병의 치료에 관한 연구를 주로하는 학문이라고 하여도 큰 잘못은 아닐것이다. 따라서 제재식 건강법은 의사에 의하여 논의되기보다는 오히려 비의사에 의하여 논의되거나 저술된 책을 더 많이 볼 수 있었다. 오늘날 우리는 문화의 발달과 더불어 건강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현저한 평균수명의 연장을 보게되었다. 1935년대에는 우리의 평균수명은 35세 내외에 불과하던것이 1986년에 와서는 남자가 65세를 넘었고 여자는 70세를 넘게 살 수 있게되었다는 사실은 놀라운 일이라하겠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어린이의 사망율이 현저히 감소되었고 계절마다 유행하여 많은 인명을 앓아가던 각종 전염병의 예방이 성공적으로 행하여져서 극히 일부의 전염병을 제외하고 그 발생이 거의 없어졌다. 거기에다가 경제사회개발의 성공으로 의식주생활이 향상되었고 그 중에서도 특히 식생활은 다른 생활환경의 개선을 앞질러서 현저하게 향상되어 앞으로 국민체위향상은 물론이고 경제적 생산활동에도 크게 기여하게되고 장수생활을 즐기게 될 것이다.

현재의 의학이 당면한 건강의 과제는 사회경제의 발전과 더불어 필연적으로 달라지게 되었다. 그것은 말할것도 없이 질병이환양상이 달라져 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사회의 발달과 더불어 직업병과 환경공해질환은 현재와 장래에 걸쳐서 큰 사회문제로 등장하였다고 생각된다. 이 문제는 개인의 건강유지 향상의 측면에서나 숙련기능인력의 노동생산성의 향상과 노동수명의 연장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현대의학이 적극적으로 지원 또는 관여하여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생

각한다. 직업병은 유해작업환경의 개선노력이 꾸준히 뒷받침이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며, 근로자 개인의 건강보장과 생산활동보장이라는, 즉 근로자의 권익옹호의 차원에서 능동적으로 근로자의 건강관리가 행하여져야 할것이다. 따라서 근로기준법령 등은 1년에 2회이상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진단을 실시하는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근로자는 정기건강검사를 받을 권리가 있는것이다. 과거 20여년간 근로자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아직도 형식적인 행사로 그치고 있는 것같은 느낌이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할것이고 그리고 건강진단의 내용을 확대하고 정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근래 우리나라의 질병의 양상이 선진국화하고 있다고 하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이것은 과거에 흔하던 급성전염병이나 폐결핵 같은 외부에서 세균이 침입하여 발생하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아주 줄어들고, 소위 「성인병」이라고 하는 만성퇴행성 질병 즉 자기 신체내부의 변화에 의하여 발병하고 사망하는 질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것이 고혈압,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이며 이런 병이 있으므로서 속발하는 뇌졸중(중풍)이나 심장병 등은 참으로 무서운 성인병이며 우리들의 식생활이 향상됨으로서 더욱 그 발병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이런 성인병으로 인한 사망이 우리나라에서나 일본이나 미국에서 다같이 1위인 것을 볼때 고혈압과 그로인한 뇌졸중과 심장병등은 아주 무서운 병이다. 다음은 각종 암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폐결핵의 사망순위가 제4위에 머물어 있으니 소홀히 할 수 없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는 과정에서 식생활과 환경의 영향을 받으면서 26세가 되면 육체적 성장의 증상에 이르고 그때부터 아주 서서히 노화 즉 퇴행하여 간다. 성인병은 대개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서 아주 서서히 시작되어 나이를 더 하여갈수록 점차 진행하고 악화하여 난치 또는 불치의 병으로 되어버린다. 따라서 올바른 건강관리를 하기 위 서는 20대 후반부터 정기건강검사를 받아야 한다. 성인병 예방을 위하여 1년에 1회이상 반드시 정기건강검사를 받아서 사소한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조기에 생활습성을 고쳐나가야 할 것이다. 성인병은 하루아침에 생기고 하루 아침에 낫는병이 아니기 때문에 조기발견 조기치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상기한 바와같이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 중의 제1위가 고혈압으로인한 병발증 등인데 동맥경화증, 당뇨병 등의 3대 성인병은 서로 매우 밀접한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이런 질환의 발병을 조기에 알아내기는 어려우나 이런 성인병들을 잘 이해하고 치료에 임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예방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정기건강검사를 반드시 정착 시키야 하겠다.

〈필자=건협 부회장, 경상대의대교수〉